

대행 스님

공양을 올려도 한마음으로 한 공덕이 되게끔 하십시오

마음공부에 지침이 되도록 한 말씀…

질문 큰스님 법문을 들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일렁거립니다.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될 수 있게 한 말씀 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전력을 끌어 쓸 때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듯이,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듯이, 우리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어렵고 항상 괴롭고…. 내가 생각할 때는 괴로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데 말입니다, 콩씨로 예를 들자면 콩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콩나무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콩나무로 화(化)했다가 콩이 열려서 콩씨가 돼 가지곤 연방 또 콩나무가 되고 또 나오고 또 되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에라! 이거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지속적이고 불생불멸인 데요.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그 생명의 근본만은 되남습니다. 불씨만은 되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남에게 작대기로 자기를 때리게 해 놓고 "당신은 나를 때리지 않았소!" 한 뜻과 같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한마디 더 한다면, 삼천대천세계를 막론하고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씨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불덩어리가 다 타 버린다 해도 타는 사이가 없고, 다 안 탔다고 해도 안 탄 사이가 없어요. 어떠한 물질적인 불씨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오고 가는 걸 보지 못하듯이 마음의 광력이나 자력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광력과 자력과 통신력이 모두 주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항상 되남아서 영원토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가 돌아가는 자체를 볼 때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떡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떡이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 속에서 수만 개가,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번져서 나가도 나간 사이가 없고, 수만 개를 들여놔도 들여놓은 사이가 없고, 두드러지는 사이가 없고, 줄어드는 사이가 없이 그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되주고 되남는다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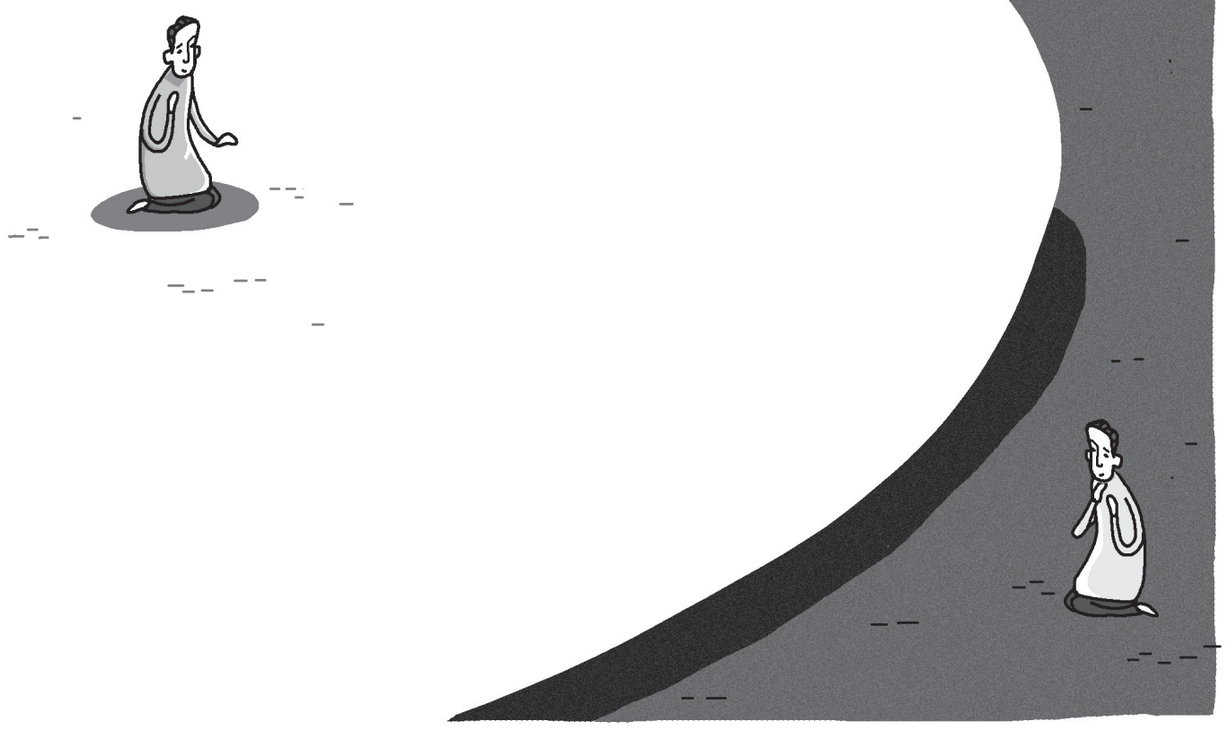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따지고 본다면 이건 물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 영원한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자기는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살아 있을 때 열반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죽은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오고 감이 없이,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오고 감이 없이 가고 올 수 있어야만이 한 발로 땅을 디딜 수가 있고 한 기둥을 세워서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예전에 한암 스님이 상원사 적멸보궁에 올라가는 중간에다가 나무 작대기 하나를 꽂아 놓았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러분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꽂아 놓은 거지 "내가 영원히 살았다." 하고 표시 내느라고 꽂아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 다니면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트이지 못해서 어쩌면 저 작대기 하나 세워 놓은 거를 저렇게 알아보지 못할까? 가지, 잎새, 뿌리내린 나무 한 그루만, 그 스님이 그렇게 심어 놨다는 것만 알았지, 도대체 스님이 그 가운데에 말씀하신 거를 영 모르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적멸보궁이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첫째, 내가 죽어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죠. 다음에, 함이 없이 할 줄 알아야 하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야 모든 것을 타파해서, 즉 말하자면 저 바닷물이 젖지 않는 도리를 알아야 적멸(寂滅)이다 이겁니다. 적멸! 사람의 몸이 죽어서는 절대 적멸이 될 수 없고 열반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어질고 착하고 부드럽게, 항상 남한테 이익하게 하면서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리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부딪침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잘못됐다 잘됐다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태어난 탓이지 누구의 탓을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두 그렇게 사셔야죠. 짧은 것도 옳다, 긴 것도 옳다, 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요." 하는 것도 옳다. 그러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 게 옳다면 그냥 아주 없는데요." 이러더라도 그것도 옳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공부 하는 데에 지침이 될 수 있고, 내 그 마음에서 모든 게 지혜롭게 타파될 수 있고, 물리가 터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뛰어나서 넓게 볼 수 있다면 넓게 생각할 수 있고, 넓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걸림이 없습니다.

과보라는 게 뭡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뭡니까?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뭡니까? 내가 죄가 없다면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영원히 걸림이 없이, 끝 간 데 없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탐진치 삼독심 제거하려면

질문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제거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정진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그거 걱정 없어요. 삼세, 삼심, 삼독 이런 것이 과거, 미래로 인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는 순간과 나올 수 있는 순간의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래가 오늘이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되면 바로 삼세가 되고 삼심이 되니까 삼심이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인과를 벗지 못하면 바로 삼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독은 바로 현실의 일심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다 놓으시면 바로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를 하나 건진다, 무명을 벗겨 준다 하더라도 그냥 소의 마음을 나와 둘이 아니게 딱 한데 합치면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 버리는 거죠. 나의 그 속을 거쳐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면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바로 나고 드는 것이 없죠.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 22면으로 계속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